

보도시점 : 2023. 12. 21.(목) 11:00 이후(12. 22.(금) 조간) / 배포 : 2023. 12. 21.(목)

외국인 주택(2차)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 결과 발표

- 해외자금 불법반입·무자격비자 임대업 등 위법의심거래 272건 적발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외국인의 주택거래 2차 및 오피스텔거래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('23.8월~'23.12월)를 실시하여 위법 의심거래 총 272건(주택 127건, 오피스텔 145건)을 적발하였다.
-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 주택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('22.6월~'22.9월) 및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('23.2월~'23.6월)에 이어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빈틈없이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.

< 외국인 주택(2차)·오피스텔 거래 기획조사 결과 >

- 외국인 주택거래 2차 조사는 '22년 6월부터 '23년 5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7,005건의 외국인 주택거래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227건을 선별하여 조사하였고,
- 외국인 오피스텔거래 조사는 '18년 1월부터 '23년 6월까지 이루어진 7,520건의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를 중심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245건을 선별하여 조사하였다.
- 이상거래 총 472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·분석 등 조사결과, 총 272건 (57.6%)의 거래에서 42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되었고,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.
- ① (**해외자금 불법반입**)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,

-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반입하는 소위 ‘환치기’를 통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6건

② (무자격비자 임대업) 방문취업 비자(H2) 등 영리활동이 불가능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17건

③ (편법증여) 특수관계인(부모, 법인 등)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(자녀, 법인 대표 등)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건

④ (대출용도 외 유용)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4건

⑤ (신고가격 거짓신고)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상이한 거래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0건

□ 관계기관별 적발사항 통보건수는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105건,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6건,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257건, 무자격비자 임대업 등 법무부 통보 17건, 금융위 등 통보 8건 등이었다.

【위법의심행위 423건 요약】

관계 기관		통보 건수	주요 위법의심 유형	처벌규정
관세청	주택	27건	·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	1년 이하 징역 / 1억원 이하 벌금 (외국환거래법 위반)
	오피스텔	9건		
법무부	주택	11건	· 무자격비자 임대업	3년 이하 징역 / 3천만원 이하 벌금 / 강제퇴거 (출입국관리법 위반)
	오피스텔	6건		

국세청	주택	56건	• 편법증여 • 특수관계자 차입금 •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	탈세 분석, 미납세금 및 가산세 추정
	오피스텔	49건		
경찰청	주택	1건	• 등기원인허위기재	3년 이하 징역 / 1억원 이하 벌금 (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)
	오피스텔	-		
관할 지자체	주택	116건	• 계약일 거짓신고 • 업·다운계약 등	취득가액의 5% 이하 과태료 (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)
	오피스텔	141건		
금융위	주택	5건	• 대출용도 외 유용 등	대출 분석, 회수
	오피스텔	2건		

*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여러 관계기관에 통보
(例 : 소명자료 일체 미제출 ⇒ 국세청+지자체+관세청 통보)

< 제도개선내용 및 향후계획 >

□ 정부는 ‘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’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,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하였다.

-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(외국인등을 포함),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,
- 기획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의 거주지¹⁾, 국내거주여부²⁾, 가족관계³⁾ 등 확인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다.

- 1) 장기 체류 외국인 거래신고시 실거주지 증명서류(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) 제출 의무화,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을 의무화
- 2) 외국인 출입국기록(법무부) 자료 공유 법적근거 마련
- 3)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세대정보(보건복지부) 자료 공유 법적근거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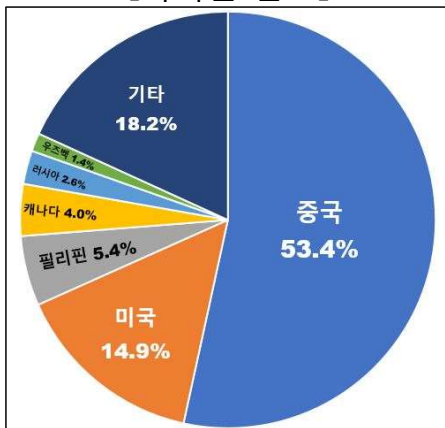
- 이번 기획조사로 적발된 행위는 국세청·관세청·법무부·금융위·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, 범죄수사,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, 앞으로도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.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거래 기획조사가 이루어지고,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”고 밝혔다.
- 또한, “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”라고 강조하였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	책임자	단 장	김성호	(044-201-3589)
		담당자	팀 장	박태진	(044-201-3606)
		담당자	주무관	이수용	(044-201-3590)
<부동산 탈세 조사>	국세청 부동산납세과	책임자	과 장	한지웅	(044-204-3401)
		담당자	사무관	김준호	(044-204-3417)
<자금 불법 반입 단속>	관세청 외환조사과	책임자	과 장	전성배	(042-481-7930)
		담당자	사무관	권병학	(042-481-7964)
<체류자격 위반조사>	법무부 이민조사과	책임자	과 장	박재완	(02-2110-4078)
		담당자	사무관	이성호	(02-2110-4079)
<실거래 조사>	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	책임자	처 장	박창일	(053-663-8760)
		담당자	부 장	최문기	(053-663-8610)
		담당자	팀 장	김동현	(053-663-8611)

- (매수인 국적)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423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, 중국인이 226건(53.4%)으로 가장 많았으며, 다음으로 미국인 63건(14.9%), 필리핀인 23건(5.4%) 순

* 매도인이 외국인이고, 매수인이 대한민국의 경우 집계에서 제외

【국적별 분포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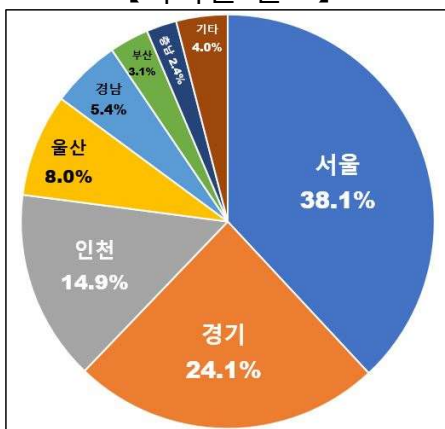
【중국인의 위법의심행위 유형】

계	① 해외자금 불법반입	② 거짓신고 등	③ 탈세 의심	④ 명의신탁 등	⑤ 편법 대출	⑥ 무자격 임대업
226	22	142	45	0	5	12

① 관세청 통보 ② 지자체 통보 ③ 국세청 통보
④ 경찰청 통보 ⑤ 금융위 통보 ⑥ 법무부 통보

- (매수 지역)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61건(35.4%)으로 가장 많았으며, 경기 102건(27.6%), 인천 63건(18.9%) 순으로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326건으로 전체의 77.1%를 차지

【지역별 분포】



【수도권의 위법의심행위 유형】

계	① 해외자금 불법반입	② 거짓신고 등	③ 탈세 의심	④ 명의신탁 등	⑤ 편법 대출	⑥ 무자격 임대업
326	26	195	85	1	7	12

① 관세청 통보 ② 지자체 통보 ③ 국세청 통보
④ 경찰청 통보 ⑤ 금융위 통보 ⑥ 법무부 통보

붙임2

주요 위법의심행위 적발 사례

사례 1-1 [서울 송파]

부동산 취득을 위한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(외국환거래법 위반)



- 외국 국적 공동매수인(부부)이 서울 소재 다세대 주택 매수자금 24.5억원을 임대보증금 및 사업소득으로 조달하였다고 주장하나, 소득금액증명서 상 소득 대비 입출금 내역 상 소득이 과다하고 해외 사업소득에 대한 출처 및 증빙이 없는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해외 소득 등의 자금 불법반입이 의심되어 관세청 통보

☞ **[조치계획]** 관세청은 매수인·배우자의 외환거래내역 확인 등 수사 실시,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 혐의 확정 시 징역 최대 1년 / 벌금 1억원

사례 1-2 [인천 서구]

부동산 취득을 위한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(외국환거래법 위반)



- 매수자들은 주택 구입자금 9.17억원 중 약8.66억원을 해외에서의 근로 소득 및 상속자금, 주택담보대출금액(외국은행)을 외국 계좌와 연결된 카드의 해외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'17년부터 6년간 한국에 입국할 때마다 수십 차례 나눠서 반입한 것으로 소명하고 있으나, 약 2억원 내외의 현금 반입에 대한 입증 자료 제출하지 않아 자금 불법반입 의심

☞ **[조치계획]** 관세청은 환치기 업자를 통한 불법반입 여부 확인 등 수사 실시,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 혐의 확정 시 징역 최대 1년 / 벌금 1억원



- 공동매수자 2인은 부부로서 아파트 전세 세입자로 거주하다가 본건을 30억원에 매수하였음. 매수자들은 기존 전세보증금 및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하였으나, 금융기관 예금액(15억원)에 대한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외자금 불법반입이 의심

☞ **[조치계획]** 관세청은 매수인·배우자의 외환거래내역 확인 등 수사 실시,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 혐의 확정 시 징역 최대 1년 / 벌금 1억원



- 외국인 매수자가 외국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사설 환전업체에 송금하고 해당금액을 환전업체 측 국내 계좌에서 매수자 국내 계좌로 입금 받는 방식으로 외국환을 수 차례 환전하는 등 2억원 이상의 금액을 국내에 반입하여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

☞ **[조치계획]** 관세청은 환치기 업자를 통한 불법반입 여부 확인 등 수사 실시,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 혐의 확정 시 징역 최대 1년 / 벌금 1억원



- 외국 국적 매수인이 서울 소재 초고가 주택을 64억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액을 모친에게 차용하여 조달하였음. 차용증 작성한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차용증 및 이자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편법증여 의심되어 국세청 통보

☞ **[조치계획]** 국세청은 차용증에 따른 이자 지급여부 등을 확인하여 탈세 혐의 발견 시 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탈루세액 추징



- 외국 국적의 배우자 및 한국인 부부가 공동명의로 단독주택을 7.9억원에 매수하면서 매수인이 대표로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4.3억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으로부터의 차용여부 및 법인 회계장부 등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, 제출 불응하는 등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되어 국세청 통보

☞ **[조치계획]** 국세청은 차용금액에 대하여 계정원장 등 정당한 회계처리 여부 확인하고 혐의 발견시 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탈루세액 추징

사례 3-1 [서울 관악]	무자격 비자 임대업 의심 (출입국관리법 위반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

매수인
(방문취업비자)

다세대 주택 6개호 30억원에 매수

무자격 비자로 체류하면서 월세 임대수입 수취
(출입국관리법 위반, 법무부 통보)



다세대주택

- 방문취업 비자(H2)로 체류하는 외국 국적 매수인이 '22년 7월부터 9월까지 기간동안 동일단지 다세대 주택 6개호를 약 30억원에 일괄 매수하여 보증금 및 월세를 수취하는 등 임대업을 영위한 것이 확인 되어 무자격 비자 임대업 혐의로 법무부 통보

👉 **[조치계획]** **법무부 조사로 위반사실 확인 시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/ 강제퇴거 조치**

사례 3-2 [서울 구로]	무자격 비자 임대업 의심 (출입국관리법 위반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방문취업(H-2)비자



매도인
(외국인)

오피스텔



2개호 매수



매수인
(외국인)

무자격 비자 불법 영리행위(임대)



월세 수취



임자인

- 외국 국적의 매수자는 오피스텔 2개호를 2.4억원에 매수하여 그 중 1개호에 대하여 보증금 및 월세를 받고 임대수익을 수취하였으나, 매수자의 체류 자격은 방문취업 비자(H2)로서 영리행위 불가하여 무자격 비자 임대업 혐의로 법무부 통보

👉 **[조치계획]** **법무부 조사로 위반사실 확인 시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/ 강제퇴거 조치**

사례 3-3
[경남 김해]

무자격 비자 임대업 의심(출입국관리법 위반)



- 외국 국적 매수자는 오피스텔 7개호를 매수하였으며 임대보증금으로 매수자금 일부를 조달하고, 월세수입을 취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. 하지만 매수자는 기업투자(D8) 비자를 보유하고 있어 주택임대를 통한 영리행위 불가하여 무자격 비자 임대업 혐의로 법무부 통보

☞ [조치계획] **법무부 조사로 위반사실 확인 시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/ 강제퇴거 조치**